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金瓊姬

金敬會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김천대학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유아교육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개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함은 목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의 구인을 파악하고, 유아의 정서지능과 기질, 그리고 인지능력과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와 평정자간 일치도, 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3세에서 6세 된 유아 97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 정서지능의 6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로 명명된 6개 요인이 전체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유아 정서지능은 기질요인과 부분적으로 낮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 정서지능과 인지능력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치도는 .94에서 .96, 평정자간 일치도는 .75에서 .99, 재검사 신뢰도는 .87과 .8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본 척도는 도구로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사의 평정에 의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정하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빨라질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한 경우 불안, 우울, 부적응의 증상으로 확산되어 정서적 불안이 증가한다. 인간은 정서적 상황에 따라 행동을 유발시키며, 격렬한 정서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제력이 약화되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업 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되며, 또한 아동이 정서와 관련된 경험, 정서의 의미, 정서의 원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이 논문은 1998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이해하는 것은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므로(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개인생활에 있어서 정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현재 정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가 갖는 정확한 기능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가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며, 인간행동을 안내하거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준다는 세 가지 핵심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정미라, 박경자, 배소연 역, 1998).

특히 지난 100년 가까이 널리 받아들여지던 전통적인 학업적성 중심의 IQ개념만으로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지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Gardner, 1983; 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6; Sternberg, 1985). 이들 이론의 공통적 특징은 인위적 검사상황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지능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지능, 창의성, 예술적 능력 등으로 지능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Gardner(1983, 1993)는 정서가 지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그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중 개인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개인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으로 구성된 개인적 지능(personal intelligence)은 전통적인 IQ검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간 지능은 각 개인들 간의 차이점을 알거나 이를 변별하는 능력으로 기분, 성향, 숨겨져 있는 의도나 욕구, 동기 등을 아는 능력을 말하며, 개인내 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 상태나 동기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살피고, 이를 상징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Thorndike와 Stein(1937)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지능을 개인적 지능의 한 요소로 보았으며, Sternberg와 Conway, Ketron, 그리고 Bernstein(1981)은 지능 전문가와 보통사람들의 지능 개념을 분석하여 암시적 지능이론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지능을 문제해결력 또는 유동적 지능, 언어적 또는 결정적 지능, 사회적 또는 실제적 지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의 두 지능은 종래의 지능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것이나 후자의 사회적 지능 또는 실제적 지능은 지능영역에서 취급하지 않던 부분이다. Sternberg(1994)는 인지과정, 경험적 측면, 맥락적 측면을 고려한 지능의 삼원이론을 주장하여 인간이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창조적, 실용적 지능을 제안하고,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켜 성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서지능을 연구하는 심리학, 신경심리학, 정신병리학, 사회생물학의 네 분야의 학자들은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의 혼합으로 다양한 색채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몇 가지의 기본적 감정에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고 추정한다. Goleman(1995)은 Ekman의 연구에 근거하여 분노, 슬픔, 두려움, 행복, 사랑, 놀라움, 역겨움, 수치/책임감 등을 기본 감정으로 간주한다.

Salovey 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하위세트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모니터하고, 이를 잘 변별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정서지능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부분은 기분의 상위경험(meta-experience of mood)이다. 이는 반성적 경험이라고도 지칭되는데, 기분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때로 기분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서지능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인인 정서적 자기조절이며, 심리적 적응이나 대인간 기능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Mayer, Salovey, Gombert-Kaufman & Biainey, 1991).

이후 Mayer와 Salovey(1997)는 자신들의 견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며, 평가하는 능력; 감정(feeling)에 접근하거나 사고를 촉진시키는 감정을 발생시키는 능력; 정서와,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도록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 재정의하였다

한편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정서의 인식, 정서의 조절과 통제,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동기화, 타인과의 감정이입, 대인관계 능력 등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즉

(1) 자기 정서의 인식은 자기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지하는 것으로 다른 단계의 정서능력의 토대가 된다.

(2) 정서의 조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과민해지지 않고 차분하며,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부정적 감정 상태를 신속히 치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3) 동기화는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한 가지 과제에 몰입하여 낙담하지 않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다. 만족감을 지연시키거나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능력은 모든 성취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자아 몰입의 경지에서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능력들은 개인의 자아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적절히 통제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공감적 이해력, 즉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

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동정심과는 다르다. 동정심은 타인과 함께 느끼고 괴로워하며 연민의 감정을 교감하는 것이나, 감정이입은 스스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5)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

결국 정서지능이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며,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한다.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능력이 방해받지 않게 하고,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Goleman, 1995).

한편 기질의 전통적 개념을 세운 Allport(1961)는 기질을 감정적 자극에의 민감성, 습관적 반응의 강도와 속도, 일반적 기분상태, 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정서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Goldsmith와 Campos(1982)는 기질을 본질적으로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는 정서성으로 보고 있다. Gibbes(1996)는 EQ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 성질이라 불리었던 능력으로 보고 있다.

Zajonc(1980, 1984)와 Lazarus(1982, 1984)의 정서와 인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정서와 인지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을 결합으로 정서지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장은 정서가 사고를 방해하며, 두 영역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지능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삼성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6; 한국심리학회, 1997; 한국아동학회, 1998; 한국어린이육영회, 1996),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들(TMMS, PONS, MEIS)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아 정서지능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여

정서지능의 구인을 확인하는 일은 정서지능을 연구하는데 있어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아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개발하여 정서지능의 구인을 탐색하고, 정서지능과 성격의 안정적 특성인 기질과 인지능력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가 도구로서 타당하고 신뢰로운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에서 6세로 김천과 구미, 청주에 소재한 8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973명이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에서 성별 구성을 보면 남아가 51.3% 여아가 48.7%로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약간 많다. 연령별로는 6세 유아가 14.6%, 5세 유아가 42.5%, 4세 유아가 34.6%, 그리고 3세 유아가 10.9% 표집되었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포

연령	성		전체	평균 연령
	남	녀		
3 세	42(4.3)*	38(3.9)	80(8.2)	3년 8.3개월
4 세	176(18.1)	161(16.5)	337(34.6)	4년 6.8개월
5 세	212(21.8)	202(20.8)	414(42.5)	5년 5.6개월
6 세	69(7.1)	73(7.5)	142(14.6)	6년 1.7개월
전 체	499(51.3)	474(48.7)	973(100)	5년 1.3개월

*() 백분율

연령별 대상자 수에 차이가 큰 것은 유치원에 재원 원아의 연령 특성에 기인한 것(국립교육 평가원, 1997)으로 연령별 표집 인원이 같도록 다른 유치원에서 3세나 6세 유아를 추가로 표집하지 않은 이유는 유치원 환경이나 기타 변인이 교사의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측정 도구

1. 유아 정서지능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김경희, 김경희, 199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50개 문항은 정서지능의 이론적 구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는 아동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유아 기질의 측정

유아 정서지능과 관련된 유아의 기질을 알기 위해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는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등의 5개 요인의 33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유아 인지능력의 측정

유아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일반적인 인지기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종합인 지능력검사'(송인섭, 문정화, 박옥정, 1995)를 사용하였다. 종합 인지능력 검사 (multidimensional cognitive abilities test for children: MCAT-C)는 4세와 5세용인 B형과 6세와 7세용인 A형으로 구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당일의 유아 연령을 기준으로 A형과 B형을 각기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1. 유아 정서지능 구인 타당화 절차

4차례의 내용 타당도와 예비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6월 25일과 28일에 걸쳐 8개 유치원에 배부하였다. 본 연구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사를 모아 놓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문항을 함께 읽어보면서 평정요령을 설명하였다. 교사들에게 문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다음에 열흘간의 기간을 주고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8개 유치원 33개 반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 987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 중 1 문항 이상 누락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973부를 분석하였다.

유아를 평정한 교사는 36명(평정자간 일치도 분석을 위한 교사 포함)으로 이들은 모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학력은 전문대 졸업에서 대학원 재학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사의 경력은 1년 5개월에서 7년 5개월까지이며, 한 교사 당 담당 원아의 수는 17명에서 41명까지로 보고되었다.

2.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관계 연구의 절차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관계 연구의 대상은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3세 반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전체와 4세 반과 5세 반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중 무선적으로 표집된 581명의 유아와 그 어머니이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581부를 배부하여 이중 520부가 회수되어 89.5%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1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17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50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유아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관계 연구 절차

유아의 정서지능이 인지능력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5세 유아 65명을 대상으로 종합 인지능력 검사(MCAT-C)를 실시하고, 정서지능과

의 상관을 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부모의 동의를 얻어 1개 유치원의 5세 반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남아 35명, 여아 30명으로, 평균연령은 5년 9.3개월이며, 연령 분포는 5년 1개월에서 6년 4개월까지이었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연구 문제에 따라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정서지능과 기질 및 인지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3)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재검사 신뢰도와 평정자간 일치도는 Pearson 상관계수로 구하였다.

결 과

1. 유아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1) 요인분석

유아정서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50개 문항의 측정결과에 공통분산 뿐 아니라 고유분산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어 공통요인분석 모형을 택하여 다중상관계곱치(SMC)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축소상관행렬의 분해방법으로 반복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수의 plot을 그려본 결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각회전(Harris-Kaiser방법, HKP=.50)을 실시하였다(이순

목, 1995).

문항의 분포 정도와 스크리 검사의 결과, 누적 분산비율 기준,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6개로 정하였다. 사각회전 후에 이 6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9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은 요인 수를 6개로 정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로 사각회전후의 구조계수 행렬을 제시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요인 부하량은 .38에서 .84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공통분은 .25에서 .68까지 분포되어 있다. 문항 29와 문항 8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인 부하량이 .50을 넘고 있는데, 문항 29의 요인 부하량은 .48이며, 문항 8은 .38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한 문항의 기준을 요인 부하량 .30 이상과 공통분 .25를 기준으로 할 때 문항 8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척도에 포함시켰다. 요인 부하량 .40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정한 예비연구(김경희, 김경희, 1998)에서 보고된 문항 8의 요인 부하량은 .75, 고유치는 .59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 행렬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명칭 및 문항 수, 문항 번호, 그리고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의 의미를 기술하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정서지능의 요인이 이론적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요인은 이론적 구성과 일치하나, 대인관계로 명명된 요인이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로 분리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과의 관계

503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하위요인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관계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과 기질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는 -.19에서 .20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하며, 상관계수의 크기가 높지 않은 것으

<표 2> 유아 정서지능의 사각회전 후 구조계수행렬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공통분
25	.77	.32	.28	.33	.14	.32	.56
31	.79	.37	.31	.37	.31	.23	.68
30	.75	.34	.25	.37	.23	.18	.59
27	.73	.31	.33	.17	.31	.33	.54
24	.74	.38	.37	.30	.24	.31	.61
23	.69	.30	.26	.25	.37	.28	.50
26	.68	.25	.39	.09	.20	.33	.59
19	.70	.41	.15	.56	.09	.19	.60
28	.67	.42	.34	.38	.20	.26	.27
22	.60	.36	.27	.23	.11	.20	.40
18	.61	.41	.13	.57	.09	.13	.54
29	.48	.28	.20	.18	.13	.24	.27
39	.36	.77	.13	.42	.12	.17	.61
38	.34	.78	.10	.47	.14	.14	.64
37	.35	.76	.09	.43	.14	.14	.61
32	.35	.74	.24	.47	.21	.30	.61
36	.39	.66	.39	.27	.35	.39	.59
34	.29	.62	.19	.49	.15	.12	.46
35	.27	.51	.37	.13	.40	.37	.44
48	.33	.55	.22	.48	.14	.15	.51
33	.37	.51	.49	.22	.36	.46	.52
44	.48	.59	.22	.50	.36	.19	.55
7	.26	.21	.80	-.03	.38	.33	.67
6	.29	.21	.78	.03	.45	.37	.65
3	.32	.21	.74	.05	.37	.38	.59
4	.41	.22	.84	.19	.29	.30	.49
2	.29	.03	.64	-.04	.37	.29	.46
1	.28	.13	.66	.09	.48	.36	.52
5	.24	.14	.66	.04	.53	.35	.53
8	.29	.19	.38	.31	.21	.18	.25
9	.19	.24	.51	.01	.47	.44	.43
12	.30	.40	.02	.73	.07	.22	.57
15	.24	.48	-.02	.69	.03	-.06	.54
16	.30	.40	-.04	.65	.04	.06	.46
11	.18	.31	-.10	.60	.03	.14	.39
13	.33	.37	.21	.61	.12	.05	.44
17	.35	.51	.17	.56	.07	.13	.44
14	.37	.52	.11	.57	.07	.13	.44
21	.41	.47	.11	.54	.14	.12	.40
20	.37	.40	.12	.50	.11	.12	.40
40	.21	.20	.39	.10	.84	.28	.72
42	.25	.21	.39	.06	.84	.32	.73
43	.19	.14	.46	.01	.80	.32	.68
41	.35	.30	.46	.14	.73	.31	.62
10	.24	.19	.51	-.03	.52	.39	.42
50	.24	.19	.41	.15	.26	.78	.63
46	.32	.21	.40	.04	.37	.81	.70
47	.26	.15	.30	.04	.33	.73	.57
45	.29	.33	.33	.27	.26	.66	.51
49	.40	.42	.28	.33	.27	.59	.51
합성 분산	9.43	8.42	7.35	6.83	6.13	5.87	
독자 분산	3.70	2.70	2.51	2.45	2.32	2.16	
공유 분산	5.73	5.72	4.84	4.38	3.81	3.71	
고유치	15.70	5.44	2.01	1.42	1.09	.96	26.62

<표 3>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요인 명칭, 문항수

		, 문항번호 및 높은 점수의 의미		
요인 명칭	문항수	문항번호	높은 점수의 의미	
요인 1 자기정서의 이용	12	18, 19,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자율적이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화 하고, 인내심을 갖는다.	
요인 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0	32, 33, 34, 35, 36, 37, 38, 39 44, 48.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배려할 수 있다.	
요인 3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9	1, 2, 3, 4 5, 6, 7, 8, 9.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한다.	
요인 4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9	11, 12, 13, 14, 15, 16, 17, 20, 21.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충동 특히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	
요인 5 교사와의 관계	5	10, 40, 41, 42, 43	교사와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다.	
요인 6 또래와의 관계	5	45, 46, 47, 49, 50	또래와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다.	

<표 4> 정서지능과 기질간의 상호상관 (N=503)

정서지능 \ 기질	기질				
	적용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자기정서의 이용	-.04	-.10*	.09*	.08	.1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04	-.14**	.05	.09*	.06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19***	-.01	-.00	.11*	.10*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12**	-.19***	.10*	.08	.01
교사와의 관계	.20***	.21***	-.04	.12**	.07
또래와의 관계	.10*	.05	.01	.09	.05
정서지능 전체 척도	-.03	-.11*	.06	.12**	.10*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자기정서의 이용'의 경우 '활동성'과는 -.10(p<.05), '정서성'과는 .12(p<.01)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활동성'과 -.14(p<.01), '반응성'과는 .09(p<.05)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적용성'과는 .19(p<.001), '반응성'과는 .11, '정서성'과는 .10의 유의한 상관(p<.05)을 보이고 있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적용성'과는 -.12(p<.01), '활동성'과는 -.19(p<.0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성'과는 .09(p<.05)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적용성'과는 .20, 활동성과는 .21(p<.001), '반응성'과는 .13(p<.01)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래와의 관계'는 '적용성'과

성'과는 .11, '정서성'과는 .10의 유의한 상관(p<.05)을 보이고 있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적용성'과는 -.12(p<.01), '활동성'과는 -.19(p<.0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성'과는 .09(p<.05)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적용성'과는 .20, 활동성과는 .21(p<.001), '반응성'과는 .13(p<.01)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래와의 관계'는 '적용성'과

는 .10, '반응성'과는 .09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정서지능척도의 총점수는 기질의 하위요인에 따라 정적 또는 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서지능은 기질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기질적 특성 중 특히 적응성과 활동성이 정서지능과 비교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 정서지능과 인지능력과의 관계

유아의 인지능력점수는 종합인지능력점사의 6개 요인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유창성과 독창성 등의 표준점수인 능력지수와 정서지능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을 보면 정서지능 하위요인과 인지능력 하위점사간의 상관은 .03에서 .33까지로 비교적

및 충동억제'는 지각력과는 .29, 추리력과는 .26, 문제해결력과는 .25, 독창성과는 .27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 < .05$).

정서지능 전체 척도 점수는 인지능력 하위점사와의 .19에서 .30까지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지각력, 추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독창성, 유창성 등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전체점수와의 관련성을 보면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그리고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25($p < .05$)과 .32($p < .01$), .25($p < .05$)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지능 전체척도 점수와 인지능력 전체점수의 상관도 .28($p < .05$)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지능력과 정서지능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정서지능과 인지능력간의 상호상관($N=65$)

정서지능 인지능력	자기정서 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도래와의 관계	유아 정서지 능 전체척도
지각력	.20	.26*	.29*	.26*	.16	.23	.30*
분류능력	.03	.20	.26*	.17	.19	.08	.19
공간인지력	.05	.23	.27*	.17	.15	.06	.19
추리력	.13	.25*	.31*	.26*	.18	.16	.27*
기억력	.15	.21	.28*	.15	.15	.14	.23
창의력	.17	.24	.31*	.24	.14	.16	.27*
문제해결력	.18	.25*	.33**	.25*	.21	.23	.31*
유창성	.12	.19	.30**	.19	.16	.24	.25*
독창성	.14	.25*	.27*	.27*	.13	.17	.26*
인지능력전체	.16	.25*	.32**	.25*	.18	.18	.28*

* $p < .05$, ** $p < .01$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요인은 지각능력과는 .26, 추리력, 문제해결력, 독창성과는 각기 .25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요인은 인지능력의 모든 하위점사와 .26에서 .33의 유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감정의 조절

2.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 평정자간 일치도 등을 조사하였다.

1) 척도의 내적 합치도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알려주는 Cronbach α 계수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의 관계' 요인은 .45에서 .97까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전체척도의 상관은 .75에서 .99까지 분포하고 있다.

<표 6> 유아 정서지능척도의 연령에 따른 Cronbarh α 계수

연령		3세	4세	5세	6세	전체아동
		(n=80)	(n=337)	(n=414)	(n=142)	(N=973)
하위 영역 및 문항 수						
자기 정서의 이용	(12)*	.91***	.92***	.92***	.93***	.9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0)	.85***	.91***	.90***	.88***	.90***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9)	.84***	.87***	.89***	.88***	.88***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9)	.80***	.87***	.86**	.85***	.86***
교사와의 관계	(5)	.81***	.89***	.87**	.85***	.87***
또래와의 관계	(5)	.86***	.87***	.85**	.84***	.86***
정서지능 전체 척도	(50)	.94***	.95***	.96**	.96***	.96***

*** p < .001 * () 안은 문항 수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구한 내적 합치도는 '자기 정서의 이용'은 .9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90,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88,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는 .86, '교사와의 관계'는 .87, '또래와의 관계'는 .86, 전체척도는 .96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두 .80이상을 넘고 있으며, 정서지능 전체척도는 .94에서 .96으로 내적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평정자간 일치도

하위 영역	반	A 반	B 반	C 반
	(n=31)	(n=38)	(n=39)	(n=39)
자기 정서의 이용	.95***	.99***	.7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94***	.97***	.64***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95***	.96***	.58***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85***	.99***	.76***	
교사와의 관계	.87***	.96***	.75***	
또래와의 관계	.84***	.97***	.45*	
정서지능 전체 척도	.96***	.99***	.75***	

* p < .05, *** p < .001

2) 평정자간 일치도

평정자간 일치도는 두 명의 교사가 있는 3개 반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각 아동을 평정한 후 평정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7>에 제시하였다. 각 반의 평정 아동 수는 31명, 38명, 39명이었다.

'자기정서의 이용' 요인은 .72에서 .99까지,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요인은 .64에서 .97까지,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58에서 .95까지,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은 .76에서 .99까지, '교사와의 관계' 요인은 .75에서 .99까지, '또래와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본 척도는 관찰 척도로서 활용하는데 있어 관찰자에 따른 변산이 있고, 하위 영역에 따라서 일치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관찰척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재검사 신뢰도

교사가 한 아동에 대한 일관된 평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3명과 35명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2개 반에서 각 교사에게 10일 간격으로 동

일한 유아를 2번 평정하게 하여 상관을 구한 재검사 신뢰도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평정척도는 7월 3일에 배부하여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평정하게 하였으며, 1차 평정자료는 매일 수거하였다. 각 유아를 평정한 뒤 10일 째 되는 날에 2차 평정을 하게 하였다. 10일 간격을 두고 재평정을 하게 한 것은 1차 평정에서의 경험이 2차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의 행동 변화가 이 기간 동안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재검사 신뢰도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1차 평정자료만 타당화 연구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8>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하위 영역	A 반(5세) (n=33)	B 반(4세) (n=35)
자기 정서의 이용	.78***	.90***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77***	.82***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89***	.62***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70***	.87***
교사와의 관계	.65***	.77***
또래와의 관계	.64***	.80***
정서지능 전체 척도	.87***	.89***

*** p < .001

각 하위 요인별로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2에서 .9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정서지능 전체 척도에서는 .87과 .89로 나타나 평정자로서의 교사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 정서지능의 전반적 발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정서지능의 구인은 Salovey와 그의 동료들(1995)이 개발한 TMMS(Trait Meta-Mood Scale), Rosenthal(1979)이 개발한 PONS(Profile of Nonverbal Sensibility), 그리고 Mayer와 그의 동료들(1997)이 개발한 MEIS (Meta-Mood Experience Scale)의 구인들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TMMS는 정서에 대한 평가와 표현 정도를, PONS는 감정이입능력, MEIS는 정서의 지각, 정서의 융합-감정이입과 선입견의 측정, 정서의 이해, 정서의 조절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에 의해 정서지능의 일부인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데 비하여 본 척도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관찰에 의해 정서지능의 요인을 평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관계기술’ 차원이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의 다른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기의 아동은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경험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성인과 상호작용 하는 경우와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경우에 있어 서로 다른 대처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 하위요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자기정서의 조절’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로 명명하였다. 이는 유아의 경우 정서표현 규칙이 덜 세련되어 있어 공격성이나 분노의 표출 등이 다른 발달시기에 비하여 분명히 표현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동일시나 강화에 의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정서의 인지능력’을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요인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보고(Buckley, Siegel & Ness, 1997; Roberts & Strayer, 1996)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으로 감정이입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은 Goleman(1995), Mayer와 Salovey(1993, 1996)가 구성한 정서지능의 구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른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아 정서지능은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의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하위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 요인이 기질의 적응성과 반응성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능력과는 -.04, .06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Goleman(1995)이 제안한 대인관계 기술을 정서지능의 구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정서지능의 경험적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한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상관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극에 수반되는 정서가 긍정적이며, 생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신체 움직임이 적은 유아가 자기 동기화 되어 있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의 움직임이 적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를 잘 인식하고 이에 따른 배려행동을 한다. 또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히 표현하는 유아일수록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에 수반된 정서상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나, 신체적 움직임은 많으며, 생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유아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충동억제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와 적응성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활동성이 매개된 때문으로 생

각되는데, 정서조절과 충동억제를 잘하지 못하는 유아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활동적인 유아로 보이고 이것이 교사에게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비추어진 것 같다. 이는 유아의 자기 주장이나 표현을 격려하는 유치원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데 교사는 조용한 유아보다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가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적응성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나 또래와의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정된 유아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신체적 움직임이 적으며, 변화나 자극에 반응적이고 긍정적 정서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지능 총점수와 인지능력 총점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서지능 총점수는 인지능력 중 지각력, 추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독창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추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독창성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정서지능이 학업중심의 지능검사에서 측정하는 것과는 다른 능력을 측정한다는 Goleman(199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와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그리고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등의 요인이 인지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감정판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라고 본 Spivack과 Shure(1974)의 견해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80을 넘고 있으며, 전체척도에서는 .94를 넘고 있어 내적 합치도

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하위요인별로 .45에서 .99까지 분포하고 있다. 전체척도에서는 .75에서 .99까지 보고된 것으로 볼 때 평정자간 일치도는 양호하여 관찰척도로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관찰자에 따른 변산이 있으므로 관찰척도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검사 신뢰도를 보면 하위요인별로는 .62에서 .9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척도에서는 .87과 .89로 보고되어 평정자로서의 교사의 신뢰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정서지능의 구인도 잘 포함하며, 도구로서의 신뢰도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김경희, 김경희 (1998).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발달*, 11(2), 31-48.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 교육연구소
- 송인섭, 문화정, 박옥정(1995). *종합인지능력검사*.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학지심리검사연구소.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정미라, 박경자, 배소연 역 (1998). *유아를 위한 정서교육 - 정서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 심리학회 (1997). *한국심리학회 1997년 통계 연구 세미나, 정서지능과 지능 지수에 대한 이해와 오해*(pp. 1-76). 서울: 한국 심리학회.
- 한국 아동학회 (1998). *1998년도 한국 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한국아동학회.
- 한국 어린이육영회 (1996).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 유아교육*. 서울: 한국어린이 육영회.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ckley, N., Siegel, L. S., & Ness, S. (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30.
- Cassidy, J., Parke, R.,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ibbs, N. (1996). The EQ Factor.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p. 91-101).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Gold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 systems*(pp.161-193). New York: Plenum Press.
- Goleman, D (1995). *Emotion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Lazarus, R. 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s*, 37, 1019-1024.
- Lazarus, R. S.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2), 124-129.
-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 *Intelligence*, 17, 433-442.
- Mayer, J.,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pp. 183-257).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 Mayer, J.,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aimplications* (pp. 1-30). New York: Basic Books, Hart Collins Pub.
- Mayer, J. D., Salovey, P., Gombert-Kaufman, S., & Biainey, K. (1991). A broader conception of mood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1), 100-111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osenthal, R. (1979). *Sensitivity to nonverbal communication: The PONS test*.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p103-181).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Salovey, P., &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pai, T. P.(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ate-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 125-154).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pivack, G., & Shure, M. B.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life problem*. San Francisco: Jossey - Bass.
-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94). Commentary: Reforming school reform: Comments on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95, 561-569.
-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1), 37-55.
- Thorndike, R. L., & Stein, S. (1937). An evaluation of the attempts to measure soci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Bulletin*, 34, 275-284.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s*, 35, 151-175.
- Zajonc, R. B. (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117-124.

Construct Validation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im, Kyung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Kim, Kyoung Ho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imchun Colleg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th temperament, and cognitive ability. For the study, 973 children were participated. They were 3-6 year olds selected from 8 kindergartens located in Kumi, Chungju, Kimchon. Three instruments were used;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EIRSPC)'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emperament Rating Scale(Chun, 1992)', and 'Multidimensional Cognitive Abilities Test for Children(Sung et al., 1995)'. The statistical analysis include reliability tests,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Pearson's correlations were used to find out relationship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th temperament, and cognitive abilit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Six factor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ere identified. These were 'utilization of emotion', 'empathy', 'appraisal and expression of sel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teacher', and 'relationship with peer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co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ree temperament factor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hysiological responses', and 'positive child's emotional responses'. In contrast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the 'active response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core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cognitive ability, especially, 'inference ability', 'perceptivity', 'creativity', 'problems solving', and 'originality in thinking'. Cronbach α of the scale ranged from .95 - .96. The range of inter-raters reliability was .75 - .99 for the total scale,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87, and .89, which were considered good.